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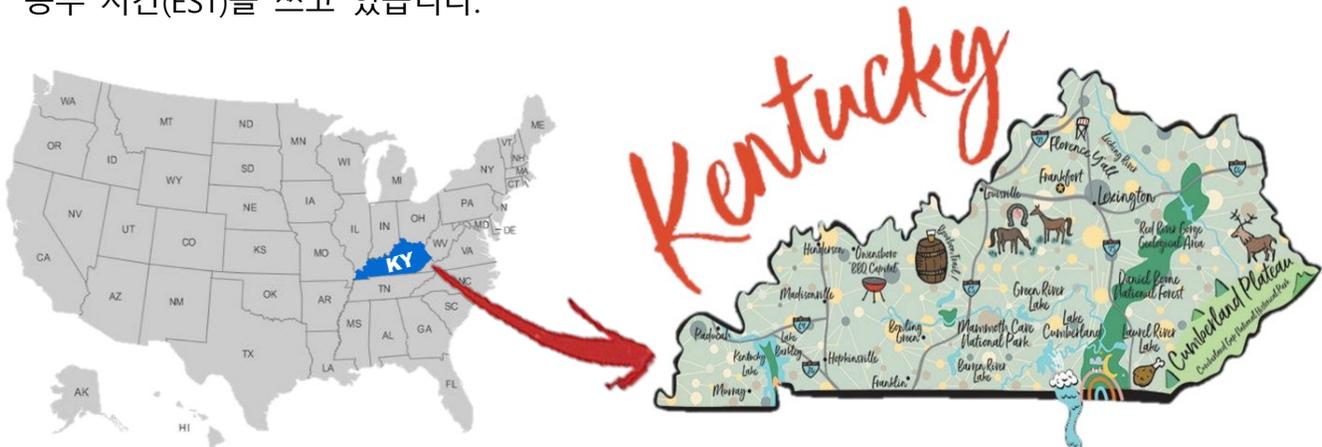
## Lexington, Kentucky 를 소개합니다.

임주형(2022-2023 직무과정)

여러분은 미국 켄터키 주 하면 무엇을 떠올리니까. 10명 중 9명, 아니 어쩌면 10명 모두 KFC 를 떠올릴 겁니다. 사실 켄터키 주는 미국에선 KFC 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KFC 의 이미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는 켄터키 주에 대한 정보가 한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는데 켄터키 주는 15번째로 연방정부에 가입했을 정도로 유서가 깊은 주입니다. 원래는 버지니아 주의 일부였으나 1792년 분리 독립해 연방정부에 가입했습니다. 켄터키 주는 흔히 미국 중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부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로컬 타임도 렉싱턴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이 미국 동부 시간(EST)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켄터키 주는 '치킨'(KFC)의 도시가 아닌, 말의 도시입니다. 미국에선 켄터키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말입니다. 비옥한 토지의 이곳은 'Blue Grass'로 불리는 파릇파릇한 풀이 자라는 지역입니다. 이런 풀을 먹고 자란 말은 건장했고 강인했으며, 일찌감치 경주마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켄터키 주 출신 말은 미국 전역에 이름을 떨쳤고, 곧 켄터키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

여기에 버번 위스키 제조 방식이 켄터키 주에서 발달하면서 또 다른 대표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렉싱턴은 시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렉싱턴은 켄터키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약 30 만명의 인구를 갖춘 루이빌(75 만명)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미국에선 인구 30 만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2020 년 기준 미국 전체 도시 중 57 번째(32 만 2570 명) 순위입니다.** 미국엔 50 개 주가 있으니 주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시내티(30 만 9317 명), 피츠버그(30 만 2971 명), 세인트루이스(30 만 1576 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켄터키 주란 이름에 가려져 그렇지 메이저리그 구단을 보유한 이들 도시보다 큰 규모입니다.

미국은 보통 광역 인구(도시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생활권 인구)로 도시 규모를 평가하는데요. 이를 적용해도 렉싱턴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2021 년 기준 렉싱턴의 광역 인구는 52 만명으로 미국 전체 59 번째에 해당합니다.**

## 렉싱턴 치안은? 미국에서 3번째로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딘가에 정착할 곳을 찾을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치안입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가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 많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렉싱턴은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 통계를 내는 '세이프와이즈'(SafeWise)란 곳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세이프와이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에서 세 번째로 안전한 도시로 렉싱턴이 꼽혔습니다.** 버지니아 주의 버지니아비치, 하와이주 호놀룰루 다음 순위입니다(관련 기사 <https://www.wtvq.com/lexington-ranked-third-safest-city-united-states/>)

렉싱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켄터키 대학교(University of Kentucky)에 근무하는 교수진 및 각종 스태프, 그리고 은퇴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일군 렉싱턴이란 도시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미국의 몇 안되는 도시 중 하나가 렉싱턴입니다.

## 렉싱턴은 교육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 'Wallethub'는 2022년 기준 **미국의 'Educated City'를 순위매김하면서 렉싱턴을 24위에 올렸습니다.** 켄터키 주의 도시 중에선 단연 으뜸입니다. 총점 66.17점으로 **뉴욕-뉴저지-저지시티(New York-Newark-Jersey City, NY-NJ-PA, 25위 65.23점)보다 앞선 순위입니다.**(관련 링크 <https://wallethub.com/edu/e/most-and-least-educated-cities/6656>)

쉽게 말해 렉싱턴엔 뉴욕보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중이 높다는 말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교양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자녀 교육에 적극적인 사람이 많으며, 각종 교육 시스템도 상당히 발달해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실제로 렉싱턴은 공교육이 발달한 50개 도시 중 한 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렉싱턴은 또 미국의 도시 중 9번째로 친근한(friendly)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자료 <https://www.on3.com/teams/kentucky-wildcats/news/lexington-tabbed-as-the-9th-friendliest-city-in-america/>) 고등교육 인구가 많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렉싱턴은 생활비가 저렴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렉싱턴은 생활비가 저렴한 곳입니다. 미국의 임금 관련 정보 회사인 'payscale'에 따르면, 렉싱턴의 생활비는 미국 평균보다 10% 낮습니다. 특히 집세(Housing)가 22%나 저렴합니다. **렉싱턴에선 3~4 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방 2~3 개, 화장실 2 개의 아파트를 월 1200~1500 달러 내외로 렌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미국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저렴한 것입니다. 공과금(Utilities)이 미국 평균보다 6% 비싸지만, 10% 저렴한 식품비(groceries)가 이를 상쇄합니다.(자료 <https://www.payscale.com/cost-of-living-calculator/Kentucky-Lexington>)

렉싱턴은 이렇게 생활비가 저렴하면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습니다. 미국 대학 순위 평가등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US News & World Report**는 **2021~22 년 미국에서 가장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50 개를 선정하면서 렉싱턴을 33 위에 올렸습니다.** 메이저리거 최지만 선수(템파베이)가 뛰고 있어 유명한 플로리다 템파(32 위) 다음 순위입니다.